

축구

8

2019년 8월 14일 수요일

스포츠동아



전북 선수들 희망나비 팔찌 착용 전북 현대는 13일 선수단이 위안부 할머니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희망을 전하기 위해 '희망나비 팔찌'를 착용했다고 전했다. 희망나비 팔찌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기부 상품이다. 전북 구단은 '선수단이 희망나비 팔찌를 착용하며 많은 분들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지을 수 없는 아픔을 함께 나누고 역사의 눈물을 잊지 않기를 바랐다'고 밝혔다. 전북 선수들은 할머니들의 생활과 복지를 위해 '나눔의 집'에 815만원을 기부하기로 했다.

다시 뜨거워진 유럽축구

이강인·백승호, 개막전 출격 대기 지동원·권창훈 부상, 정우영 회복

'한국축구의 미래' 이강인(18·발렌시아)과 백승호(22·지로나)가 출격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다.

이들이 속한 스페인 프리메라리가(1부리그)와 세군다 디비전(2부리그)이 나란히 2019~2020시즌의 막을 올린다. 프리메라리가 발렌시아는 18일(한국시간) 레알 소시에다드를 안방으로 불러들이고, 세군다 디비전 지로나는 19일 스포르팅 히혼과 홈에서 개막전을 펼친다.

2018~2019시즌 1군에 데뷔했던 이강인은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월드컵 골든볼 수상자라는 달라진 위상을 안고 새 시즌을 맞이한다. 몇 달 전만 하더라도 주전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현재 발렌시아 안팎으로부터 뜨거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한때 유럽 여러 구단들의 이적설이 나돌기도 했던 이강인은 현재 소속팀 잔류로 거취가 사실상 굳어졌다.

이제 관심사는 골든볼의 주인공이 개막전에서 두 날개를 활짝 펼치느냐다.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이강인은 이번 프리시즌 꾸준히 출전하면서 존재감을 드러냈다. 더불어 구단 수뇌부가 이강인에게 강력한 지지를 보내는 점 역시 개막전 출장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

지난 시즌 지로나의 강등으로 2부리그에서 새 시즌을 시작하는 백승호도 모든 준비를 마쳤다. A매치 데뷔전이었던 6월 이란전을 성공적으로 치르는 등 휴식기를 알차게 보낸 백승호는 이강인과 마찬가지로 주전 경쟁을 이겨내야 19일 개막전 출격이 가능하다.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새로운 축구 인생을 꾸리는 지동원(28·마인츠)과 권창훈(25), 정우영(20·이상 프라이부르크)은 부상 약재로 울고 웃는 처지다. 아우크스부르크(독일)에서 마인츠로 이적한 지동원은 왼쪽 무릎 부상으로 올해 내 복귀가 불투명하고, 디종(프랑스)에서 프라이부르크로 등지를 옮긴 권창훈은 최근 경기 도중 종아리 근육이 파열돼 2~3주 정도 치료가 필요하다. 역시 바이에른 뮌헨에서 유니폼을 갈아 입은 정우영도 최근 친선경기 도중 발을 다쳤지만 짧은 치료를 받은 뒤 11일 독일축구협회(DFB) 포칼 1라운드 마그데부르크전에서 교체로 나와 온전한 몸 상태를 뽐냈다.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16일 정규리그 마지막 '현대가 대비' | 2강 '울산 vs 전북' 운명을 건다

승점 6점짜리 대권전 인정사정 볼 것 없다!

울산 최근 15경기연속 무패 상승세 감독 부재·문선민 출전 불투명 변수 주춤한 전북 반전의 계기 만들 찬스 올시즌 상대전적 1승1무 울산 우위

'하나원큐 K리그1 2019'는 울산 현대와 전북 현대의 2강 체제다. 25라운드까지 진행된 가운데 울산이 16승7무2패(승점 55)로 1위에 올라 있다. 전북은 15승8무2패(승점53)로 울산의 뒤를 바짝 쫓고 있다. 승점 차이는 단 2점이다.

두 팀은 16일 오후 7시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시즌 세 번째 맞대결을 펼친다. 올 시즌 전적에서는 울산이 1승1무로 앞서 있다. 울산은 5월 12일 홈에서 펼쳐진 전북과의 시즌 첫 번째 맞대결에서 2-1로 승리를 거뒀다. 7월 14일 전주 원정에서는 1-1 무승부를 기록했다. 첫 번째 맞대결 결과에 따라 벌어진 승점 3이 현재 두 팀의 순위에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시즌 정규리그 마지막 맞대결은 '승점6'짜리나 마찬가지다.

두 팀은 이번 경기이후에도 정규리그 종료까지 7경기가 더 남아 있지만, '승점6'짜리가 될 이번 맞대결 결과는 선두 경쟁의 운명을 가를 전망이다.

선두 울산은 다시 한 번 전북을 잡을 경우 승점 차이를 5점까지 벌릴 수 있다. 스피릿라운드까지 한 차례 맞대결이 더 펼쳐질 예정이지만 시즌이 막바지로 접어드는 가운데 승점5는 결코 적은 차

이가 아니다. 게다가 울산은 15경기 무패(10승5무) 상승세를 달리고 있다. 전북을 잡을 경우, 상승세가 한동안 더 지속될 수 있다.

전북은 11일 포항 스틸러스에 2-1로 승리를 거두기는 했지만, 7월 31일 제주 유나이티드(2-2), 4일 강원FC(3-3)와 연이어 무승부에 그치며 적지 않은 타격을 받았다. 게다가 최근 수비가 헐거워지면서 실점이 많아지고 있다는 불안요소도 안고 있다. 전북으로서는 울산 전 승리를 통해 다시 1위 자리를 빼앗고 다시 안정을 찾는다는 각오다. 전북이 승리할 경우, K리그 우승 레이스는 장기화 될 가능성이 높다.

변수도 있다. 울산은 김도훈 감독(49)이 11일 대구FC와의 경기 도중 퇴장을 당해 전북과의 경기에서 벤치에 앉을 수 없다. 전북은 주축 공격수 문선민(27)이 직전 포항과의 경기에서 허벅지 통증을 호소해 경기 도중 교체됐다. 경기 출전 여부는 좀더 지켜봐야겠지만, 출전을 하더라도 100% 컨디션으로 나설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또한 무더운 날씨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무더위가 절정이다. 연일 36도 이상의 고온이 이어지고 있고 습도도 상당하다. 그만큼 선수들의 체력소모가 클 수밖에 없다. 마냥 강한 압박과 활동량을 강조했다가 후반 체력저하로 팀이 무너질 수 있다. 선수들의 체력을 고려한 전략과 적절한 선수교체, 그리고 무더위 속 선수들의 집중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한 판이다.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하나원큐 K리그1 2019' 선두 경쟁을 벌이고 있는 울산 현대와 전북 현대가 16일 전주에서 진검승부를 펼친다. 이는 올 시즌 K리그1 선두 싸움의 운명을 가를 한판이 될 전망이다. 지난 7월 전주에서 펼쳐진 시즌 두 번째 맞대결에서 공중 볼을 다루고 있는 전북 이주용(왼쪽)과 울산 김인성. 스포츠동아DB

'푹푹 찌는 8월 성적' 5년간 최고...서울, 비결이 뭐야?

전국이 폭염과 열대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낮 최고 기온이 섭씨 35도를 웃돌고, 밤에도 기온이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살인적인 더위 속에서 프로 축구는 계속된다.

무더위는 승부의 변수가 된다. 극심한 체력 저하를 초래하며 컨디션을 급격하게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또 부상 위험은 그만큼 높아진다. 결국 선수 층이 열은 팀은 무더운 8월이 두렵다.

그렇다면 가장 더운 8월에 성적이 좋은 팀은 어디일까.

올 시즌을 포함해 지난 5년간 K리그1

8월 성적을 비교해보면 어느 정도 우열이 가려진다. 한국프로축구연맹 자료에 따르면, FC서울이 무더위 속에서도 승점을 잘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8월 성적은 서울이 가장 좋다. 13승3무5패 승점 42다. 2015년 3승1패와 2016년 4승1패, 그리고 2017년 2승2무를 기록하며 무더위를 날려버렸다. 강등위까지 몰렸던 2018시즌엔 3승3패로 주춤했지만, 올 시즌 1승1무로 다시 안정적인 전력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절대 1강의 위치를 구축했던 전북도 무더위를 잘 넘긴 팀이다. 승점 41(12승5무5패)로 서울에 이어 2번

짜다. 하지만 정상에 올랐던 지난 시즌엔 기대에 못 미쳤다. 3승1무2패를 기록했는데, 이는 시즌 전체 패배(4패)의 절반을 8월에 당한 것이다.

25라운드 현재 선두인 울산 현대는 8월에 유독 무승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승점 37 중 무승부가 10번이나 있었다(9승10무3패). 2015년 1승2무2패, 2016년 1승3무1패, 2017년 1승3무 등 많은 무승부를 기록하며 치고 나갈 타이밍을 놓쳤던 울산은 지난 시즌엔 5승1무로 더위에 가장 강했다. 올 시즌은 전북, 서울과 똑같은 1승1무다.

철저한 컨디션 관리에 체력전 우위 더위에 맥 못춘 제주·수원 승점 '0'

2016년부터 3년간 단 1승만 올렸던 상주 상무는 올 시즌 확 달라졌다. 1부리그 중 유일하게 2연승이다. 반면 더위를 타는 팀들도 보인다. 제주 유나이티드와 수원 삼성은 승점이 없고(두 팀 모두 2패), 대구FC(1무1패)와 강원FC(2무)는 아직 승리가 없다.

K리그1은 10월초까지 33라운드를 치르고 이후 상위 6팀과 하위 6팀으로 나뉘는 스피릿라운드에 돌입한다. 따라서 상위 스피릿에 들기 위해서는 무더위를 어떻게 넘기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최현길 기자 choiHg2@donga.com

'경찰청과 이별' 아산 무궁화, 값진 안산전 승리

경찰청 소속 12명 제대로 선수 물갈이 내년 K리그2 참여 미지수에도 4위 질주

아산 무궁화는 12일 안산 와스타디움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2 2019' 안산 그리너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2-1로 승리했다. 이전까지 팀의 주축을 이뤘던 경찰청 소속 선수 12명이 제대하면서 전력이 약화됐지만 의미 있는 승리를 챙겼다. 1승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경기였다.

아산은 안산전 당일 12명의 선수들이 제대해 원 소속구단으로 복귀했다. 안현



아산 무궁화 선수단이 12일 안산 그리너스 원정에서 2-1 승리를 거둔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 한국프로축구연맹

범, 이한샘, 고무열, 김선민, 김도혁, 김준수 등이 전력에서 제외됐다. 그로 인해 이전까지 기회가 많지 않았던 선수들이 안산과의 경기에 나섰다. 상대의 자책골로 행운의 선제골을 얻은 아산은 후반 22분 오세훈의 추가골이 터져 2-1로 이겼다. 볼 점유율에서는 상대에게 크게 밀렸지만 결과를 가져오면서 그동안 출전시간이 많지 않았던 선수들이 자신감을 갖는 계기를 마련했다.

아산은 9월에도 팀을 떠나는 선수들이 나온다. 안산전에서 1도움을 기록한 주세종과 미드필드의 핵심 이명주가 다음달 6일 제대한다. 이들이 마지막 경찰청 소속 선수들이다. 그렇게 되면 아산의 전력은 더 약해질 수밖에 없다. 아산은 후반기 제대 인원이 나오는 것에 대비해 여름이적시

장에서 임대와 단기 계약 등으로 선수를 대거 보강했다. 올 시즌 잔여 경기를 치르는 데 큰 지장은 없다. 경찰청 인원이 모두 팀을 떠나도 시즌을 정상적으로 치를 수 있는 선수단 규모는 확보해 놓았다.

23라운드까지 치른 현재 아산은 11승4무8패로 승점 37을 마크하며 리그 4위에 올라있다. 4위까지 승격을 위한 K리그2 자체 플레이오프(PO) 진출 자격이 주어진다. 그러나 아직 경기가 많이 남았고, 구단의 운명도 최종적으로 결정되지 않아 K리그1 승격을 위한 도전을 이어갈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경찰청과 결별한 아산이 시민구단으로 전환해 리그에 지속적으로 참여할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 어려운 상황에서 값진 1승을 거둔 아산의 행보가 주목된다.

최용성 기자 gtyong@donga.com